

# 첨단과학도들이 ‘꿈’을 갖는 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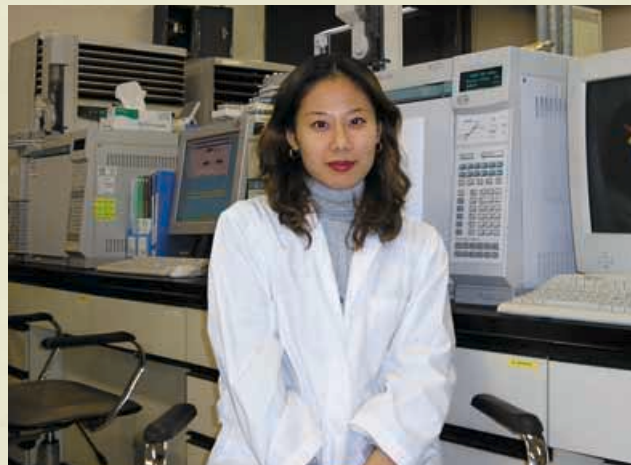
글\_서정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연구원 jmseo@kist.re.kr

우리 나라의 건국 이후 커다란 성과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사건은 아마도 벤 존슨의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건일 것이다. 이 약물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대사를 촉진시키며 근육의 크기를 키워 근육강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당시 유달리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필자는 금메달 박탈당한 후 쓸쓸한 표정을 지은 채 출국장을 나서는 벤 존슨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지금, 벤 존슨이 도핑 테스트를 한 그곳에서 과학과 스포츠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도핑컨트롤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곳으로 박사급 연구원 3명, 연구원급 6명, 그외의 연구생 8명 등 총 17명이 꾸려 나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체시료의 초정밀 분석을 위한 GC/MS, HPLC, LC/MS 등 최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흥분제, 마약제, 이뇨제, 근육강화제, 단백질 호르몬 등 150종 이상의 금지약물 검사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도핑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주관으로 매년 여러 차례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은 전세계 도핑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여 도핑기관의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기에 모든 연구진들은 책임감 및 능력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부담감과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 연구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업무량 속에서도 연구원이나 연구생들의 입가에 늘 미소가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도핑분석법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실험할 때면 어린애처럼 마냥 신이 나고 즐거워지는



것은 연구원이나 연구생들이 느끼는 공통점일 것이다.

도핑분석을 하면서 웃지 못 할 에피소드들도 많다. 한 예로 최근에 몽골올림픽위원회로부터의 분석의뢰건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소변 색깔이 일반 소변 색깔과는 다르게 흑색에 가까운데다 약취가 심해 ‘소변이 운반되는 동안 상했을 것이다’, ‘사람의 소변이 아니다’ 등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데 나중에 팩스로 받은 약물 검사 양식서를 확인한 결과 그 흑색 소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말이었다.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때 약취가 너무 심해 점심을 모두 굶어야 했다.

연구자의 길로 접어든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 현상을 볼 때면 연구자의 길로 접어든 선택에 후회가 없다. 아니 오히려 선진 과학기술 경쟁의 최선두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과학의 길은 넓은데 눈에 보이는 사회적 지위만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미래를 잘 못 예단하지 않도록, 과학기술계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는 첨단과학도들이 꿈을 갖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